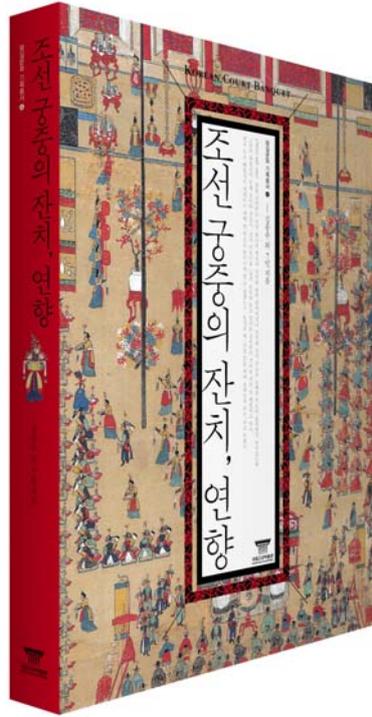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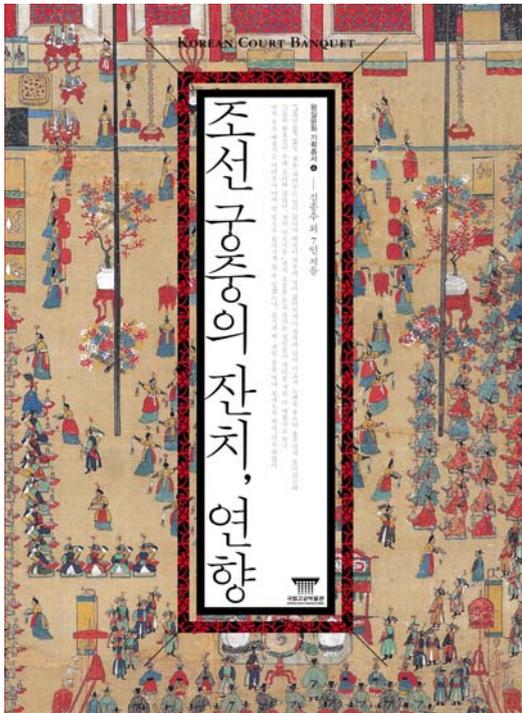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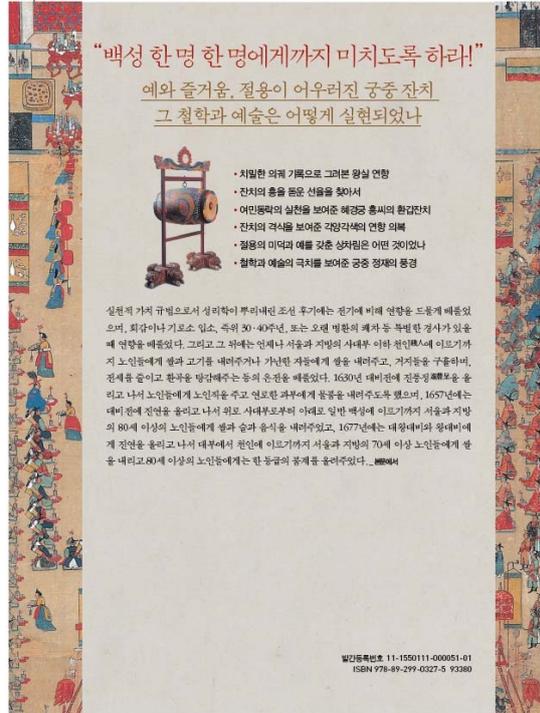
사 진 자 료



전체 표지



앞면 표지



뒷면 표지

- 치밀한 의례 기록으로 그려본 왕실 연향
- 잔치의 총괄 문헌 산물을 찾아서
- 여민동력의 실천을 보여준 혜경궁 홍씨의 참관잔치
- 잔치의 격식을 보여준 각양각색의 연향 의복
- 절용의 미덕과 예술 깃춘 상차림은 어떤 것이었나
- 철학과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 궁중 정재의 풍경

실천적 가치 규명으로서 성리학이 뿌리내린 조선 후기에는 권가에 비해 연향을 드물게 베풀었으며, 퇴각이나 기묘소 입소, 즉위 30~40주년, 또는 오랜 병환의 쾌차 등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연향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인제나 시용과 지방의 사재부 이하 청인(靑人)에 이르기까지 노신들에게 별과 고기를 배려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쌀을 배려하고, 거저들을 구출하여, 정세(正世)를 밝히고 환부를 탕양(湯養)하는 등의 목적을 베풀었다. 1630년 대비전에 정통(正統)복을 올리고 나서 노신들에게 노인직을 주고 연호(年號) 수여에 관여하도록 했으며, 1657년에는 대비전에 정언을 올리고 나서 의포(義布) 사대(沙汰)로부터 아예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시용과 지방의 80세 이상의 노신들에게 쌀과 술과 음식을 배려하였고, 1677년에는 대령(大令)의 왕에게 정언을 올리고 나서 태부(太夫)의 관인에 이르기까지 시용과 지방의 70세 이상 노신들에게 쌀을 배려하고 80세 이상의 노신들에게는 한 등급의 품계를 올려주었다....

발간등록번호 11-1550111-000051-01
ISBN 978-89-299-0327-5 93380